

I. 조사목적

현대 산업사회는 급속한 기술발달로 직업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촉진시켰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정보부족 등으로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입시위주의 진로지도는 진학지도에 치우쳐 다양한 진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자료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청소년 개인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탐색의 기회도 주어지고 있지 않아 청소년들로 하여금 폐쇄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을 위하여 제안된 청소년 수련활동에서는 직업준비와 관련된 활동영역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런 현실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이에 적합한 직업적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뿐만 아니라 청소년 수련활동은 이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로 전문적 직업능력을 갖춘 청소년 육성은 개인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될 것이다. 특히 개인의 진로발달 단계에서 진로탐색과 진로준비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직업능력은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이자 덕목으로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진로결정의 기초로 삼아 개인의 직업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이나 청소년 수련활동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의식 및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런 조사결과는 청소년 수련활동 특히 직업준비활동과 중등교육에서의 진로지도 및 직업준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진로의식의 개념

진로(career)란 개인이 일생을 통해서 갖게 되는 직업의 총체를 의미한다. 제한된 의미로서의 진로는 교직, 판매직, 의료직과 같은 직업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것의 총체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주로 한 직업을 평생동안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대에는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져서 일생동안 여러 가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이재창, 1994: 245).

Super는 진로란 개인의 일하는 생활과정 동안에 차지하는 직업, 직종, 직위의 순서라고 하였다. 한편 의식이란 개인이 처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주관적 반응으로서 스스로의 느낌, 생각, 또는 행동에서 깨우쳐지는 심리적 내용으로 강무섭과 박영숙은 진로의식을 진로의식 발달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진로의식이란 직업적 자아주체성(vocational self-identity)의 형성으로 이것은 자신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인식하거나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강무섭·박영숙, 1984: 53).

진로의식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진로의식이란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개인의 진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 즉 가치관, 자아개념, 직업관, 진학관 등을 포함하는 의식체계’라고 하고 있다(서울대 사범대학교육연구소, 1981: 527). 이상에서 살펴 본 진로의식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진로의식이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형성된 진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 즉 가치관, 직업관, 자아개념, 진학관 등을 포함하는 의식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진로발달 이론

한 개인은 '왜 어떤 특정한 진로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 진로발달 이론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분류되고 있는데 이 중 Herr와 Cramer(1979)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는 특성·요인이론(trait and factor theory)으로 이 이론은 개인의 특성과 특정한 직업이 필요로 하는 특성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이론(decision theory)으로 가장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 세 번째는 사회이론(sociological emphases)으로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 네 번째는 심리이론(psychological emphases)으로 동기, 욕구, 가치관, 성격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 다섯 번째는 발달이론(developmental emphases)으로 개인발달의 각 단계에 있어서 직업 선택의 위치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이재창, 1994: 247).

여기에서는 인간발달의 개념을 직업선택 및 결정에 도입하여 진로발달을 개인의 전체발달의 한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Ginzberg와 Super의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Ginzberg의 이론

Ginzberg의 직업선택 이론은 직업행동과 관련된 최초의 이론으로 이 이론에 의하면 직업선택은 발달과정으로, 한 번에 끝나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정서적 요인, 교육의 기회와 성취 등의 영향을 받고 개인의 흥미, 능력, 욕망과 현실사회와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행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Ginzberg는 진로발달 단계를 환상기, 잠정

기, 현실기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환상기(fantasy period)는 11세까지의 시기로 개인의 욕구와 충동이 직업선택과 동일시되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인 잠정기(tentative period)는 11~17세에 해당되는 시기로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이 진로선택 과정에 사용되지만 현실적 요인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이다. 이 시기는 네 개의 하위단계 즉 흥미가 직업선택의 기초가 되는 11~12세의 흥미단계, 능력이 진로계획에 고려되는 13~14세의 능력단계, 흥미와 능력을 통제해서 가치가 직업선택 과정에 고려되는 14~16세의 가치단계, 앞에 열거된 요인들을 전부 고려해서 직업선택을 하게 되는 17세의 전환단계로 구분된다. 세 번째 단계인 현실기(realistic period)는 17~20대 초반에 해당되는 시기로 자격요건이나 교육기회와 같은 현실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간의 타협이 이루어져 실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Ginzberg는 20세 초반이나 중반에 진로의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수정하여 진로선택 과정은 개인의 일의 생애와 상호공존 하는 것으로 언제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2) Super의 이론

Super는 이론보다는 접근방법(approac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접근방법을 ‘변별·발달·사회·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Super의 접근방법은 직업생애단계, 직업성숙도, 자아개념의 직업자아개념으로의 전환, 진로유형 등의 네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진로발달에 있어서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통합적인 접근방법이다. Super에 의하면 개인은 일부는 자신의 심리적·생

리적 속성에 의해서, 또 일부는 의미있는 타자를 포함하는 환경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비율에 따른 전체발달의 한 측면으로서 직업적으로 발달하게 된다고 한다.

Super는 개인의 생애를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보고 5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성장기는 출생에서 14세까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주요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아개념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었다가 차차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되는 시기로 다시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3단계로 구분된다. 두 번째 단계인 탐색기는 15세에서 24세까지로 자기검증, 역할수행, 직업적 탐색 등을 하게 되며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의 하위단계로 구분된다. 세 번째 단계인 확립기는 24세에서 44세까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분야를 발견하고 그 분야에서 영구적인 위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로 시행기와 안정기로 다시 구분된다. 네 번째 단계인 유지기는 45세에서 64세까지로 직업세계에서 확고한 위치가 확립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기이다. 다섯 번째 단계인 쇠퇴기는 65세이후로 작업활동에 변화가 오고 급기야는 중단하게 되는 시기로 관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Super의 발달적 접근은 매우 포괄적인 이론으로 직업이란 자아의 표현과 생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결과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로는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와 직업인식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는데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장순(1996)의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는 중학생들의 진로의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한 연구이다. 진로의식영역에 대한 조사결

과는 93.1%의 학생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해 62.9%의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갖는 이유로는 %정도가 보람을 찾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진로정보영역에 대한 조사결과는 직업의 필요성을 느낀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79.3%)가 가장 많았고 직업선택시 적성과 흥미(64.6%)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보는 매스컴(55.6%)을 통해 가장 많이 얻고 있었으며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님(34.5%)과 선생님(27.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영역에 대한 조사결과는 진로지도 전달실 설치에 대해 85.3%가 찬성을 하였으며 77.2%의 학생이 교과목이 진로선택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영역에 대한 조사결과는 직업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과 능력(88.6%)이며 진로결정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학교성적(6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가선(1996)의 ‘진로지도에 있어서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진로계획 수립여부와 개개인의 자아에 대한 이해정도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부모, 교사들의 진로의식을 비교해 본 결과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진학의 이유에 대해서 ‘취직을 위해서’라고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복(1994)의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는 중학생들의 진로의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이다. 기술 및 가정 교과서의 진로단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로교육의 내용이 기초적이고 이론적이며 직업의 종류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교육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조사결과 진로관에 있어서는 진로선택에 관한 지식이 미비하고 진로결정은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관에 있어서는 원하는 직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터득하는 방법 및 과정을 제

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관에 있어서는 본인의 적성과 능력보다는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인문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숙자(1993)의 '학생들의 직업인식에 관한 조사연구'는 학생들의 직업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직업관을 조사·분석한 연구이다. 서울 및 중·소도시의 초·중·고등학생 8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보호자의 직업에 대한 평가, 학생 자신들의 장래직업 선택기준, 직업인식 방법, 직업관 및 희망직업 변화시기 및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학생들은 부모의 직업을 과반수정도(58.9%)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과반수이상(67.2%)이 이어받고 싶지는 않다고 하여 부모의 직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장래의 직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12살 정도에 처음 생각하게 되었으며 과반수정도(57.4%)가 가정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도는 성장함에 따라 희망직업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로는 적성과 능력, 성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에 대한 준비는 학생들의 %정도(61.2%)가 중·고등학교 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반수정도(45.7%)의 학생들이 대학은 반드시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는 남자는 기술·과학관련 직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1/3정도가 교사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82.8%)의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흥미와 열성 및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교한(1993)의 '국민학생의 진로인식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인식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인식은 학년에 따라서도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고학년

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자의 학력에 따라서도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석(1991)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기대와 관련요인’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요인에 따른 직업기대의 차이를 구명한 연구로 조사결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기대 경향은 교육자, 기술자, 상업계 종사자, 의약계 종사자, 회사원 등을 원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기대 이유로는 적성과 흥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성별 직업기대는 남학생의 경우 기술자, 상업계 종사자 등의 직업기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교육자, 의약계 종사자, 예체능계 종사자 등의 직업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높은 집단은 상업계 또는 기술자를 성적이 낮은 집단은 교육자, 회사원 등의 직업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지역,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소득수준 등에 따라서도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소년들의 진로역량은 건전하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결정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행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지도 및 교육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청소년으로 전체 표본수는 800명이었으며, 지역별·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유의표집 하였다. 조사는 1998년 6월 20일에서 7월 4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수거된 설문지는 776부이었고, 이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중학교 315부, 고등학교 383부로 총 698부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338명으로 전체의 48.4%이며, 여학생은 360명으로 전체의 51.6%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높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15명으로 전체의 45.1%, 고등학생이 383명으로 전체의 54.9%로 고등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다.

<표 III-1> 설문대상 집단

	남자	여자	전체
중 학 교	164	151	315 (45.1%)
고등학교	174	209	383 (54.9%)
전 체	338(48.4%)	360(51.6%)	698(100.0%)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크게 ① 진로결정 및 준비수준 ② 직업선호도 ③ 직업정보 인지수준 ④ 직업선택 결정 및 장애요인 ⑤ 진로상담 대상

및 진로정보원 ⑥ 직업준비 프로그램 ⑦ 개인적인 인적사항의 7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사항목은 연구자가 기존의 진로의식과 관련된 논문 및 Osipow등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진로결정수준검사, Crites가 개발한 CMI를 김현옥(1989)이 번안한 진로성숙도 검사, 김봉환(1996)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검사도구를 참고로 하여 최종적으로 구성된 조사영역별 세부항목은 <표Ⅲ-2>와 같다.

3. 결과분석방법

조사결과 분석은 SPSS/PC로 하였고, 사용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주요 변인별 교차분석이 사용되었으며, 교차분석의 통계치는 χ^2 값을 산정하여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았다. 교차분석에서는 학교급별, 성별, 성적별 변인만을 사용하였다.

4. 조사의 한계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의식 및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가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에 한정하여 임의표집한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이 진로의식에서 다루어야 할 심층적이고 미시적인 요인 및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연구결과 해석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다.

<표 III-2>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조사영역	설문문항수	세부항목(문항수)
진로결정 및 준비수준	15	○ 진로결정수준(2) ○ 진로성숙도(7) ○ 진로준비행동(6)
선호직업	5	○ 청소년의 희망직업 및 선택이유(2) ○ 부모님의 기대직업 및 선택이유(2) ○ 진로결정시기(1)
직업정보 인지수준	6	○ 직무내용(1) ○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적성(1) ○ 작업조건(1) ○ 임금 및 승진(1) ○ 구직방법(1) ○ 직업의 전망(1)
직업선택 결정 및 장애요인	3	○ 직업선택시 가장 중요시 하는 것(1) ○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1) ○ 진로선택시 장애요인(1)
진로상담 대상 및 진로정보원	3	○ 진로상담대상(1) ○ 진로선택 정보원(1) ○ 진로준비시기(1)
직업준비	1	○ 직업준비 프로그램 내용(1)
개인적인 인적사항	7	○ 성별 및 학교(2) ○ 경제적 수준(1) ○ 학교성적(1) ○ 선호교과목(1) ○ 부모님의 학력 및 직업(2)
총문항수	40	

IV. 조사결과

1. 청소년의 진로결정 및 준비수준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결정 및 진로성숙도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했는지의 여부와 진로결정에 대한 도움의 필요성을 통해 진로결정수준을 알아 보았고, 진로성숙도는 직업에서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직업선택에서의 독립성 및 직업관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진로준비수준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상담경험이 있는지 또는 관련서적을 구입하거나 학원 등에 다니고 있는지 등의 행동을 통해 살펴보았다.

1)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

(1) 진로결정 여부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잘 알고 있다’에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40.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3.8%만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38.1%가 ‘그렇다’, 42.2%가 ‘보통’, 19.7%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과반수정도(42.8%)가 ‘그렇다’, 30.0%가 ‘보통’, 27.1%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결정과 미결정이 확실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40.5%가 ‘그렇다’, 34.3%가 ‘보통’, 25.1%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40.9%가 ‘그렇다’, 36.7%가 ‘보통’, 22.5%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진로결정수준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상:56.7%, 중:39.2%, 하:33.6%)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 진로를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알고 있다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체
학교급별				
중학교	38.1	42.2	19.7	315(100%)
고등학교	42.9	30.0	27.1	383(100%)
성별				
남학생	40.6	34.3	25.1	338(100%)
여학생	40.9	36.7	22.4	360(100%)
성적별				
상	56.7	25.6	18.1	127(100%)
중	39.2	37.5	21.6	357(100%)
하	33.6	31.4	30.9	214(100%)
전 체	40.7	35.5	23.8	698(100%)

(2) 진로결정에서의 도움의 필요성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에 대해 과반수정도(53.7%)의 청소년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3.7%만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48.8%가 ‘그렇다’, 23.9%가 ‘보통’, 27.3%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과반수이상(57.7%)이 ‘그렇다’, 21.7%가 ‘보통’, 20.7%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결정은 하였으나 이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52.0%가 ‘그렇다’, 23.4%가 ‘보통’, 24.6%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55.3%가 ‘그렇다’, 21.9%가 ‘보통’, 22.7%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진로 결정에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상:49.6%, 중:52.5%, 하:57.9%) 성적이 낮을수록 진로결정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하다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체
학교급별				
중학교	48.8	23.9	27.3	315(100%)
고등학교	57.7	21.7	20.7	383(100%)
성별				
남학생	52.0	23.4	24.6	338(100%)
여학생	55.3	21.9	22.7	360(100%)
성적별				
상	49.6	25.2	25.2	127(100%)
중	52.5	23.6	23.8	357(100%)
하	57.9	19.6	22.4	214(100%)
전 체	53.7	22.7	23.7	698(100%)

2) 청소년의 진로성숙수준

(1) 직업에서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

‘어떤 직업에서든 성공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항목에 청소년들의 세 명 중 한 명 정도(27.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과반수 정도(48.0%)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직업에서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27.6%가 ‘그렇다’, 27.3%가 ‘보통’, 45.1%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27.4%가 ‘그렇다’, 22.2%가 ‘보통’, 과반수(50.3%)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직업에서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28.7%가 ‘그렇다’, 25.1%가 ‘보통’, 과반수

정도(46.1%)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26.4%가 ‘그렇다’, 23.9%가 ‘보통’, 49.7%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성공에의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상:31.4%, 중:27.8%, 하:24.7%) 성적이 높을수록 직업에서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 어떤 직업에서든 성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체
학교급별				
중학교	27.6	27.3	45.1	315(100%)
고등학교	27.4	22.2	50.3	383(100%)
성별				
남학생	28.7	25.1	46.1	338(100%)
여학생	26.4	23.9	49.7	360(100%)
성적별				
상	31.4	18.9	49.6	127(100%)
중	27.8	24.9	47.3	357(100%)
하	24.7	27.1	48.1	214(100%)
전 체	27.5	24.5	48.0	698(100%)

(2) 직업에서의 보수에 대한 생각

‘수입만 많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라는 항목에 청소년들의 %정도(69.5%)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11.1%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직업선택시 보수보다는 다른 요인을 많이 고려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11.8%가 ‘그렇다’, 20.4%가 ‘보통’, 67.8%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10.5%가 ‘그렇다’, 18.6%가 ‘보통’, 71%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직업선택에서 보수외의 다른 요인을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15.7%가 ‘그렇다’, 22.8%가 ‘보통’, 61.4%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6.7%가 ‘그렇다’, 16.2%가 ‘보통’, %가 넘는 77.2%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직업선택에서 보수를 고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아니다’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상:75.6%, 중:70.8%, 하:63.9%) 성적이 높을수록 직업선택에서 보수를 고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수입만 많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체
학교급별				
중학교	11.8	20.4	67.8	315(100%)
고등학교	10.5	18.6	71.0	383(100%)
성별				
남학생	15.7	22.8	61.4	338(100%)
여학생	6.7	16.2	77.2	360(100%)
성적별				
상	7.1	17.3	75.6	127(100%)
중	10.4	18.8	70.8	357(100%)
하	14.1	21.6	63.9	214(100%)
전 체	11.1	19.4	69.5	698(100%)

(3) 직업선택에 대한 부모님과 타협성

‘나는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에 청소년들의 %정도(71.5%)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4.2%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는 직업에 대한 수용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님들이 직업을 추천해 줄 때 자녀들의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지위나 명예, 보수 수준에서 직업을 추천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4.3%가 ‘그렇다’, 32.2%가 ‘보통’, 63.5%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4.2%가 ‘그렇다’, 17.8%가

‘보통’, 78.0%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는 직업을 수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보여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2.4%가 ‘그렇다’, 28.7%가 ‘보통’, 69.0%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5.9%가 ‘그렇다’, 20.1%가 ‘보통’, 73.9%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직업선택시 부모님의 의견을 수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그렇다’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상:9.5%, 중:3.4%, 하:2.4%) 성적이 높을수록 직업선택에서 부모님의 의견을 수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5> 나는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체
학교급별				
중학교	4.3	32.2	63.5	315(100%)
고등학교	4.2	17.8	78.0	383(100%)
성별				
남학생	2.4	28.7	69.0	338(100%)
여학생	5.9	20.1	73.9	360(100%)
성적별				
상	9.5	23.0	67.5	127(100%)
중	3.4	24.6	71.9	357(100%)
하	2.4	24.4	73.2	214(100%)
전 체	4.2	24.3	71.5	698(100%)

(4) 희망하는 직업성취에 대한 자신감

‘누구나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자기가 바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항목에 청소년들의 75.4%(75.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1.2%만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노력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85.5%가 ‘그렇다’, 8.3%가 ‘보통’, 6.7%

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67.3%가 ‘그렇다’, 17.8%가 ‘보통’, 14.9%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노력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함을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보여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76.9%가 ‘그렇다’, 12.4%가 ‘보통’, 10.7%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73.8%가 ‘그렇다’, 14.5%가 ‘보통’, 11.7%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중’인 집단이 성적이 ‘상’인 집단과 ‘하’인 집단보다 ‘그렇다’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상:70.1%, 중:77.6%, 하:74.6%) 성적이 ‘중’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직업성취에서 노력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체
학교급별				
중학교	85.5	8.3	6.7	315(100%)
고등학교	67.3	17.8	14.9	383(100%)
성별				
남학생	76.9	12.4	10.7	338(100%)
여학생	73.8	14.5	11.7	360(100%)
성적별				
상	70.1	14.2	15.7	127(100%)
중	77.6	12.6	9.8	357(100%)
하	74.6	14.6	10.8	214(100%)
전 체	75.4	13.5	11.2	698(100%)

(5) 직업에서의 자율성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에 청소년들의 대부분(88.5%)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1%만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이 보장되는 직

업을 선호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85.7%가 ‘그렇다’, 12.4%가 ‘보통’, 1.9%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대다수(90.8%)가 ‘그렇다’, 8.7%가 ‘보통’, 0.5%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87.8%가 ‘그렇다’, 10.7%가 ‘보통’, 1.5%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89.1%가 ‘그렇다’, 10.0%가 ‘보통’, 0.8%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남녀 모두 자유로운 직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중’인 집단이 성적이 ‘상’인 집단과 ‘하’인 집단보다 ‘그렇다’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상:85.1%, 중:90.7%, 하:87.0%) 성적이 ‘중’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에서의 자율성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7> 자유가 충분히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체
학교급별				
중학교	85.7	12.4	1.9	315(100%)
고등학교	90.8	8.7	0.5	383(100%)
성별				
남학생	87.8	10.7	1.5	338(100%)
여학생	89.1	10.0	0.8	360(100%)
성적별				
상	85.1	12.6	2.4	127(100%)
중	90.7	8.7	0.6	357(100%)
하	87.0	11.7	1.4	214(100%)
전 체	88.5	10.3	1.1	698(100%)

(6) 직업선택 방법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해보고 마음에 드는

직업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항목에서는 청소년들의 응답이 삼분되고 있다. 청소년의 1/3정도(28.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3.0%가 '보통',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38.8%로 나타나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후 최종적으로 직업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33.1%가 '그렇다', 31.5%가 '보통', 35.3%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24.3%가 '그렇다', 34.2%가 '보통', 41.5%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견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실제로는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28.2%가 '그렇다', 30.3%가 '보통', 41.5%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28.3%가 '그렇다', 35.6%가 '보통', 36.1%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상:47.3%, 중:38.7%, 하:33.6%)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직업선택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직업선택은 여러 종류의 직업을 경험한 후 하는 것이 좋다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체
학교급별				
중학교	33.1	31.5	35.3	315(100%)
고등학교	24.3	34.2	41.5	383(100%)
성별				
남학생	28.2	30.3	41.5	338(100%)
여학생	28.3	35.6	36.1	360(100%)
성적별				
상	22.8	29.9	47.3	127(100%)
중	25.6	35.7	38.7	357(100%)
하	36.0	30.4	33.6	214(100%)
전 체	28.3	33.0	38.8	698(100%)

(7) 평생직업에 대한 인식정도

‘직업은 일단 한번 택하고 나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항목에 청소년들의 %정도(72.8%)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17.5%가 ‘보통’, 그리고 9.7%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직업선택 및 유지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68.9%가 ‘아니다’, 19.4%가 ‘보통’, 11.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75.9%가 ‘아니다’, 15.9%가 ‘보통’, 8.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직업이란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66.3%가 ‘아니다’, 21.3%가 ‘보통’, 12.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78.9%가 ‘아니다’, 13.9%가 ‘보통’, 7.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상:77.2%, 중:74.2%, 하:67.8%)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적이 높을수록 직업은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직업은 한번 선택하고 나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체
학교급별				
중학교	11.8	19.4	68.9	315(100%)
고등학교	8.1	15.9	75.9	383(100%)
성별				
남학생	12.5	21.3	66.3	338(100%)
여학생	7.2	13.9	78.9	360(100%)
성적별				
상	13.4	9.4	77.2	127(100%)
중	7.9	17.9	74.2	357(100%)
하	10.7	21.5	67.8	214(100%)
전 체	9.7	17.5	72.8	698(100%)

3)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수준

(1) 진로에 대한 관심정도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해 요즘 이야기들을 나눌 적이 있다’에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56.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8.8%가 ‘보통’, 그리고 24.6%만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자신들의 적성 및 진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41.8%가 ‘그렇다’, 21.7%가 ‘보통’, 36.4%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68.6%가 ‘그렇다’, 16.5%가 ‘보통’, 15.0%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대학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진학과 관련하여 자신의 적성 및 진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51.8%가 ‘그렇다’, 19.6%가 ‘보통’, 28.5%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61.0%가 ‘그렇다’, 18.1%가 ‘보통’, 20.9%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에 관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남학생들보다는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인 것 같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상:60.6%, 중:59.8%, 하:48.6%)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적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제도교육 속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은 진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고 진학은 거의 성적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성적이 낮을 경우 상대적으로 진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의 폭도 줄어들고 따라서 진로 및 진학과 관련된 대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IV-10> 적성 및 진로에 대해 요즈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체
학교급별				
중학교	41.8	21.7	36.4	315(100%)
고등학교	68.6	16.5	15.0	383(100%)
성별				
남학생	51.8	19.6	28.5	338(100%)
여학생	61.0	18.1	20.9	360(100%)
성적별				
상	60.6	15.0	24.4	127(100%)
중	59.8	18.5	21.7	357(100%)
하	48.6	21.7	29.8	214(100%)
전 체	56.6	18.8	24.6	698(100%)

(2) 진로정보 접촉실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잡지를 요즈음 구입 또는 읽어보았다’라는 항목에 파악수(57.3%)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17.7%가 ‘보통’, 그리고 25.0%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와 관련된 서적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55.9%가 ‘아니다’, 19.5%가 ‘보통’, 24.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58.5%가 ‘아니다’, 16.3%가 ‘보통’, 25.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진로정보 접촉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입시준비에 전념하기 때문인 것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58.9%가 ‘아니다’, 18.2%가 ‘보통’, 22.9%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55.7%가 ‘아니다’, 17.4%가 ‘보통’, 26.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정보를 더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상:28.6%, 중:27.6%, 하:18.4%)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적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진로와 관련된 서적을 구입 또는 읽어보았다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체
학교급별				
중학교	24.6	19.5	55.9	315(100%)
고등학교	25.2	16.3	58.5	383(100%)
성별				
남학생	22.9	18.2	58.9	338(100%)
여학생	26.9	17.4	55.7	360(100%)
성적별				
상	28.6	19.8	51.5	127(100%)
중	27.6	18.6	53.8	357(100%)
하	18.4	15.1	66.5	214(100%)
전 체	25.0	17.7	57.3	698(100%)

(3) 진로관련 심리검사 경험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라는 항목에 과반수정도(48.0%)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15.9%가 ‘보통’, 그리고 36.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의 반정도는 진로선택 및 결정에 도움을 주는 각종 심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52.8%가 ‘아니다’, 15.0%가 ‘보통’, 32.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44.0%가 ‘아니다’, 16.8%가 ‘보통’, 39.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진로관련 심리검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55.2%가 ‘아니다’, 18.4%가 ‘보통’, 26.4%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41.3%가 ‘아니다’, 13.6%가 ‘보통’, 45.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거의 2배 정도로

심리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상:44.9%, 중:36.0%, 하:30.9%)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적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검사를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적성과 흥미 등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체
학교급별				
중학교	32.2	15.0	52.8	315(100%)
고등학교	39.3	16.8	44.0	383(100%)
성별				
남학생	26.4	18.4	55.2	338(100%)
여학생	45.2	13.6	41.3	360(100%)
성적별				
상	44.9	18.9	36.2	127(100%)
중	36.0	17.2	46.8	357(100%)
하	30.9	12.1	57.0	214(100%)
전 체	36.0	15.9	48.0	698(100%)

(4) 진로상담 경험

‘지난 몇 개월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이용한 적이 있다’라는 항목에 대다수(96.7%)의 청소년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1.8%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이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외에는 진로와 관련하여 상담실을 통한 진로상담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96.1%가 ‘아니다’, 1.6%가 ‘보통’, 2.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97.1%가 ‘아니다’, 1.3%가 ‘보통’, 1.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학교급을 막론하고 진학을 앞둔 학년외에는 진로상담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96.1%가 ‘아니다’, 1.8%가 ‘보통’, 2.1%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97.2%가 ‘아니다’, 1.1%가 ‘보통’, 1.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진로상담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상:3.9%, 중:1.4%, 하:1.4%)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적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상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3>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이용한 적이 있다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체
학교급별				
중학교	2.3	1.6	96.1	315(100%)
고등학교	1.5	1.3	97.1	383(100%)
성별				
남학생	2.1	1.8	96.1	338(100%)
여학생	1.6	1.1	97.2	360(100%)
성적별				
상	3.9	3.9	92.1	127(100%)
중	1.4	0.6	98.0	357(100%)
하	1.4	1.4	97.1	214(100%)
전 체	1.8	1.4	96.7	698(100%)

(5) 진로준비 경험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항목에 ⅔정도(65.1%)의 청소년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18.7%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와 관련된 준비는 진학과 관련되어 상급학교 진학학년에 가서야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66.5%가 ‘아니다’, 18.5%가 ‘보통’, 15.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64.0%가 ‘아니다’, 14.4%

가 ‘보통’, 21.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64.7%가 ‘아니다’, 17.2%가 ‘보통’, 18.1%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65.5%가 ‘아니다’, 15.3%가 ‘보통’, 19.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상:27.0%, 중:19.0%, 하:13.1%)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와 관련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나는 학원 등을 다니면서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체
학교급별				
중학교	15.0	18.5	66.5	315(100%)
고등학교	21.7	14.4	64.0	383(100%)
성별				
남학생	18.1	17.2	64.7	338(100%)
여학생	19.1	15.3	65.5	360(100%)
성적별				
상	27.0	17.5	55.6	127(100%)
중	19.0	15.7	65.3	357(100%)
하	13.1	16.4	70.6	214(100%)
전 체	18.7	16.2	65.1	698(100%)

(6)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진로계획 수립여부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과반수정도(41.1%)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22.9%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했어도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40.5%가 ‘아니다’, 39.2%가 ‘보통’, 20.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41.7%가 ‘아니다’, 33.5%가 ‘보통’, 24.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에서 진로를 준비하는 단계로 이행함에 따라 진로목표가 확실해지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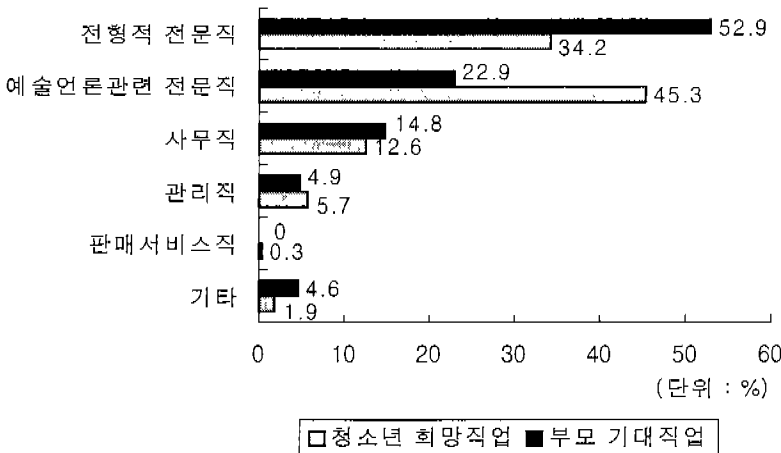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40.8%가 ‘아니다’, 36.3%가 ‘보통’, 23.0%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41.4%가 ‘아니다’, 35.8%가 ‘보통’, 22.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상:34.7%, 중:21.3%, 하:18.3%)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목표가 뚜렷하고 이를 실행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지 알고 있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5>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체
학교급별				
중학교	20.4	39.2	40.5	315(100%)
고등학교	24.9	33.5	41.7	383(100%)
성별				
남학생	23.0	36.3	40.8	338(100%)
여학생	22.8	36.8	41.4	360(100%)
성적별				
상	34.7	32.3	33.1	127(100%)
중	21.3	37.9	40.8	357(100%)
하	18.3	35.2	46.5	214(100%)
전 체	22.9	36.1	41.1	698(100%)

2. 청소년의 희망직업과 부모의 기대직업



[그림 IV-1] 청소년의 희망직업과 부모의 기대직업

1) 청소년의 희망직업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45.3%)는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예술·엔터 관련 전문직(디자이너:9.7% 예술가:8.8% 연예인:8.8% 언론인·PD:8.5% 운동선수:2.3% 등)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사(12.3%), 의사·약사(5.7%), 교수·학자(5.1%), 법조인(3.9%) 등과 같은 전형적 전문직(34.2%), 회사원(3.7%), 공무원(2.1%) 등과 같은 사무직(12.6%), 관리직(5.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예술·엔터 관련 전문직(47.0%), 전형적 전문직(32.7%), 사무직(13.3%), 관리직(3.8%) 순으로, 고등학생은 예술·엔터 관련 전문직(43.9%), 전형적 전문직(35.5%), 사무직(12.0%), 관리직(7.3%) 순으로 나타나 상급생일수록 전형적 전문직과 관리직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선호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예술·언론관련전문직(42.0%), 전형적전문직(31.1%), 사무직(16.9%), 관리직(7.1%) 순으로, 여학생은 예술·언론관련전문직(48.3%), 전형적전문직(37.2%), 사무직(8.6%), 관리직(4.4%)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예술관련전문직과 전형적전문직을, 남학생이 사무직과 관리직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선호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전형적전문직(상: 47.2%중:35.3%하:24.8%)을, 성적이 낮을수록 예술·언론관련전문직(상:39.4% 중:43.7%하:51.4%)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디자이너·프로그래머(13.7%), 교사(12.3%), 언론·광고·영화인(11.6%), 과학자·기술자·건축가(9.0%), 연예인·모델(8.8%), 의사·약사·간호사(6.6%), 작가·예술가(5.2%), 사업가(5.0%) 순으로 나타났다(<표IV-16> 참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디자이너·프로그래머(16.2%), 연예인·모델(12.1%), 교사(9.5%), 과학자·기술자·건축가(8.3%), 법조인(6.7%), 작가·예술가(6.6%), 의사·약사·간호사(5.7%), 언론·광고·영화인(5.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언론·광고·영화인(16.9%), 교사(14.6%), 디자이너·프로그래머(11.7%), 과학자·기술자·건축가(9.6%), 의사·약사·간호사(7.7%), 사업가(6.5%), 연예인·모델(6.1%), 회사원·은행원(4.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과학자·기술자·건축가(13.2%), 언론·광고·영화인(13.1%), 디자이너·프로그래머(10.4%), 교사(6.2%), 회사원·은행원(6.5%), 연예인·모델(5.7%), 법조인(5.4%), 군

인·경찰(5.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18.1%), 디자이너·프로그래머(16.9%), 연예인·모델(11.7%), 언론·광고·영화인(10.6%), 의사·약사·간호사(8.9%), 작가·예술가(6.7%), 과학자·기술자·건축가(5.0%), 항공승무원(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청소년의 구체적인 희망직업

(단위 : %)

	전체	순위	중학생	순위	고교생	순위	남	순위	여	순위
디자이너,프로그래머	13.7	1	16.2	1	11.7	3	10.4	3	16.9	2
교 사	12.3	2	9.5	3	14.6	2	6.2	4	18.1	1
언론,광고,영화인	11.6	3	5.3	8	16.9	1	13.1	2	10.6	4
과학,기술,건축가	9.0	4	8.3	4	9.6	4	13.2	1	5.0	7
연예인, 모델	8.8	5	12.1	2	6.1	7	5.7	6	11.7	3
의사,약사,간호사	6.6	6	5.7	7	7.7	5	4.1		8.9	5
작가,예술가	5.2	7	6.6	6	3.9		3.6		6.7	6
사업가,경영인	5.0	8	3.2		6.5	6	5.9		4.2	
회사원, 은행원	4.1		4.1		4.2	8	6.5	5	2.0	
법 조 인	3.9		6.7	5	1.9		5.4	7	2.8	
군인, 경찰	3.0		4.4		1.8		5.3	8	0.9	
항공승무원	2.7		3.2		2.3		0.6		4.7	8

2) 부모의 기대직업

부모님들의 과반수이상(52.9%)은 가장 선호하는 자녀직업으로 의사, 법조인 등과 같은 전형적전문직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언론관련전문직(22.9%), 사무직(14.8%), 관리직(4.9%)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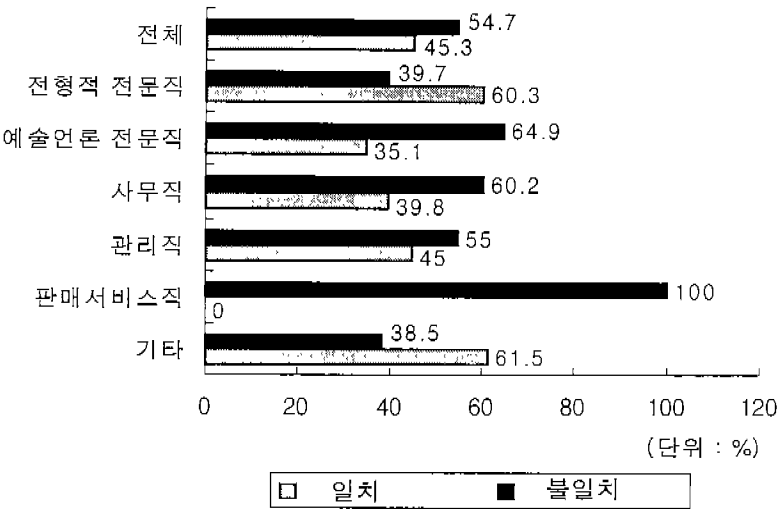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전형적전문직(52.1%), 예술·언론관련전문직(26.3%), 사무직(12.7%), 관리직(3.8%) 순으로, 고등학생은 전형적전문직(53.5%), 예술·언론관련전문직(20.1%), 사무직(16.4%), 관리직(5.7%) 순으로 나타나 상급생일수록 전형적전문직과 관리직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선호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전형적전문직(46.7%), 사무직(20.7%), 예술·언론관련전문직(18.0%), 관리직(7.7%) 순으로, 여학생은 전형적전문직(58.6%), 예술·언론관련전문직(27.5%), 사무직(9.2%), 관리직(2.2%)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전형적전문직과 예술·언론관련전문직을, 남학생이 사무직과 관리직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선호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전형적전문직(상: 65.4% 중:58.0% 하:36.9%)을, 성적이 낮을수록 예술·언론관련전문직(상:19.7% 중:20.7% 하:28.5%)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

3) 청소년의 희망직업과 부모의 기대직업과의 일치정도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군과 부모가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직업군과의 일치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불일치 비율이 54.7%로 일치



[그림 IV-2] 청소년과 부모의 희망직업 일치정도

비율(45.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를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전형적 전문직은 과반수이상(60.3%)이 일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언론·예술관련 전문직(64.9%), 사무직(60.2%), 관리직(55%), 판매서비스직(100%)에서는 과반수이상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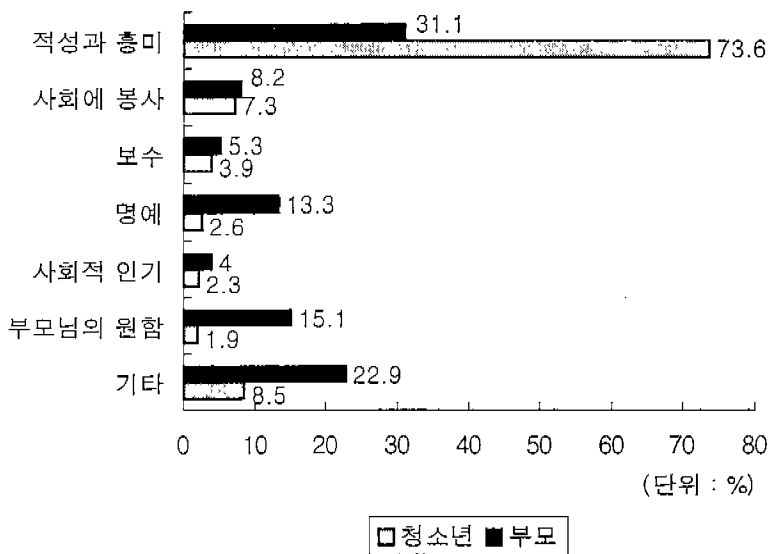
4) 청소년의 희망직업 결정시기

청소년들은 ‘초등학교때’(24.0%), ‘고등학교 1학년때’(23.5%), ‘중학교 1학년때’(20.9%) 순으로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대다수가 ‘중학교 1학년때’(41.6%)와 ‘초등학교때’(40.6%),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때’(41.1%)와 ‘중학교 3학년때’(23.3%) 희망하는 직업을 결정했던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진학과 관련하여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p=.000).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때’(23.4%)와 ‘초등학교 때’(22.6%), ‘중학교 1학년때’(22.6%) 가장 많이 희망하는 직업을 결정한 반면 여학생은 과반수정도가 ‘초등학교때’(25.3%)와 ‘고등학교 1학년때’(23.6%) 희망하는 직업을 결정했던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적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청소년과 부모의 희망직업 선택이유



[그림 IV-3] 청소년의 희망직업 선택이유

1) 청소년의 희망직업 선택이유

청소년들의 대다수(73.6%)는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로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7.3%), ‘보수가 많기 때문’(3.9%),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2.6%),

‘사회적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2.3%) 순으로 나타나 보수와 명예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72.0%),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10.2%),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2.9%), ‘보수가 많기 때문’(2.5%), ‘사회적 인기가 높기 때문’(2.2%) 순으로, 고등학생은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74.9%), ‘보수가 많기 때문’(5.0%),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5.0%),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2.9%), ‘사회적 인기가 높기 때문’(2.3%),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2.3%) 순으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직업선택에서 보수를 고려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69.1%),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8.6%), ‘보수가 많기 때문’(5.9%),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3.3%),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2.4%) 순으로, 여학생은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77.8%),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6.1%), ‘사회적 인기가 높기 때문’(3.3%),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1.9%), ‘보수가 많기 때문’(1.9%)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직업의 보수와 부모님의 의견을 참고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상: 8.7% 중:7.3% 하:6.6%),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상:4.7% 중:2.8% 하:0.9%)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부모님의 기대직업 선택이유

부모님들의 삼분의 일정도(31.3%)는 자녀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로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

님이 원하기 때문'(15.1%),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13.3%),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8.2%), '보수가 많기 때문'(5.3%)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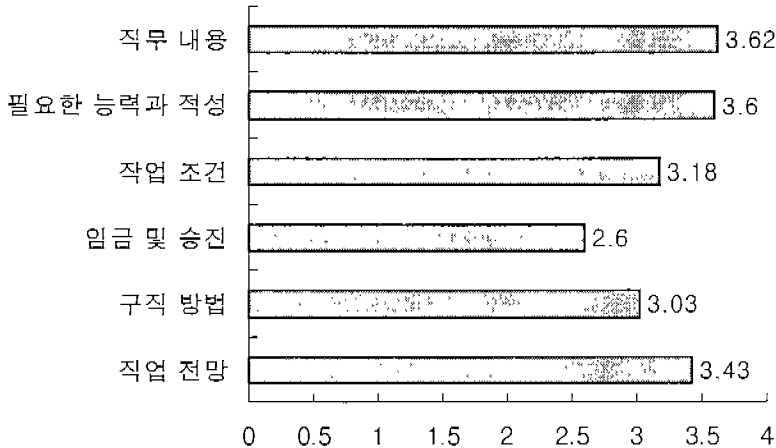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32.9%),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16.0%),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12.8%),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12.1%), '보수가 많기 때문'(4.5%), '사회적 인기가 높기 때문'(1.6%) 순으로, 고등학생은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29.7%),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14.4%),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14.2%), '보수가 많기 때문'(6.0%), '사회적 인기가 높기 때문'(6.0%) 순으로 나타나 상급생일수록 사회봉사 보다는 보수와 명예획득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27.5%),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17.7%),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16.5%),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9.3%), '보수가 많기 때문'(6.0%), '사회적 인기가 높기 때문'(2.4%) 순으로, 여학생은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34.4%),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12.8%),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10.3%),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7.2%), '사회적 인기가 높기 때문'(5.6%), '보수가 많기 때문'(4.7%)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는 비율과 사회적 인기에 연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상:15.0% 중:14.6% 하:10.0%), '사회적 인기가 높기 때문'(상:7.1% 중:3.9% 하:2.4%)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희망직업에 대한 직업정보 인지수준

1) 청소년의 희망직업에 대한 직업정보 인지수준



[그림 IV-4] 청소년의 직업정보 인지수준(평균점수)

청소년의 희망직업에 대한 직업정보 인지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무내용, 필요한 능력과 적성, 작업조건, 임금 및 승진, 구직방법,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선택한 직업에 대한 직무내용에 대해 청소년들의 과반수이상(55.0%)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택한 직업에 필요한 능력과 적성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의 과반수이상(56.7%)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한 직업에 대한 작업조건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43.7%)가 보통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택한 직업의 임금수준이나 승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47.3%)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한 직업에 대한 구직방법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인지수준이 삼분되어(잘안다:28.7% 보

통:38.8% 잘모른다:29.5%)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희망하는 직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과반수정도(47.2%)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희망직업에 대한 직업정보 인지수준은 보통이상임을 알 수 있다.

<표 IV- 17> 청소년의 희망직업에 대한 직업정보 인지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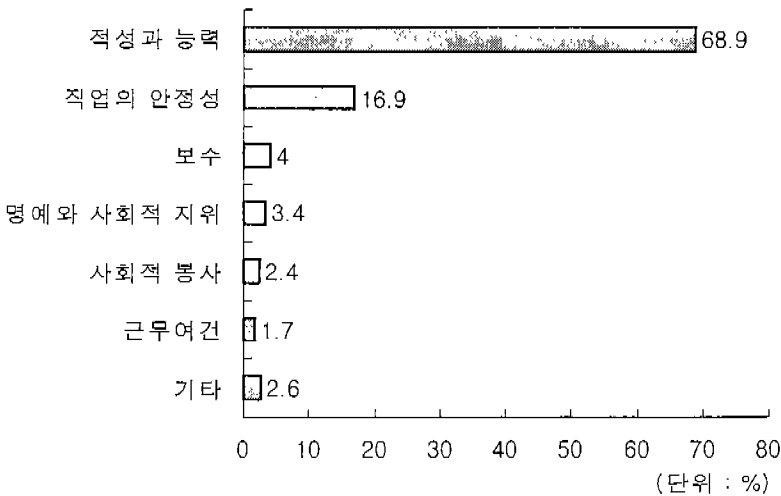
	매우 잘안다	잘안다	안다 (합계)	보통	모른다	전혀 모른다	모른다 (합계)
직무 내용	14.7	40.3	55.0	38.5	5.2	1.3	6.5
필요한 능력과 적성	12.8	43.9	56.7	35.1	6.5	1.7	8.2
작업 조건	7.7	27.1	34.8	43.7	18.7	2.9	21.6
임금 및 승진	3.7	11.4	15.1	37.6	36.0	11.3	47.3
구직 방법	8.0	22.7	30.7	38.8	25.1	5.4	30.5
직업 전망	11.8	35.4	47.2	40.2	9.4	3.2	12.6

5. 직업선택시 고려요인

1) 직업선택시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

청소년들의 과반수이상(68.9%)은 직업선택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적성과 능력'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의 안정성'(16.9%), '보수'(4.0%), '명예와 사회적 지위'(3.4%), '사회적봉사'(2.4%) 순으로 나타나 보수와 명예와 같은 일의 본질보다는 일의 성격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적성과 능력'(66.6%), '직업의 안정성'(16.6%), '사회적봉사'(4.8%), '보수'(3.8%), '명예와 사회적 지위'(3.2%) 순



[그림 IV-5] 직업선택시 우선 고려요인

으로, 고등학생은 ‘적성과 능력’(70.8%), ‘직업의 안정성’(17.2%), ‘보수’(4.2%), ‘명예와 사회적 지위’(3.7%), ‘근무여건’(2.1%) 순으로 나타나 진로준비 시기에 있는 고등학생이 진로탐색 시기에 있는 중학생에 비해 보수와 근무여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직업세계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적성과 능력’(65.6%), ‘직업의 안정성’(15.1%), ‘명예와 사회적 지위’(5.0%), ‘보수’(4.7%), ‘근무여건’(3.0%) 순으로, 여학생은 ‘적성과 능력’(71.9%), ‘직업의 안정성’(18.6%), ‘보수’(3.3%), ‘사회적 봉사’(2.8%), ‘명예와 사회적 지위’(1.9%)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명예와 지위’ ‘근무여건’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의 상하에 관계없이 ‘적성과 능력’(상:70.1% 중:68.1% 하:69.5%), ‘직업의 안정성’(상:13.4% 중:18.2% 하:16.9%), ‘보수’

(상:3.1% 중:3.9% 하:4.7%), ‘명예와 사회적 지위’(상:5.5% 중:2.2% 하:4.2%) 순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2) 청소년들이 직무수행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청소년들의 %이상(72.2%)은 직무수행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일에 대한 흥미와 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21.6%)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이상(72.7%)이상이 ‘일에 대한 흥미와 열성’,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18.4%), ‘일에 대한 기술’(5.1%), ‘일에 대한 지식’(3.5%) 순으로, 고등학생은 %이상(71.8%)이 ‘일에 대한 흥미와 열성’,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24.3%), ‘일에 대한 기술’(2.1%), ‘일에 대한 지식’(1.3%)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인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이상(73.7%)이상이 ‘일에 대한 흥미와 열성’,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19.8%), ‘일에 대한 기술’(3.8%), ‘일에 대한 지식’(2.1%) 순으로, 여학생은 70.8%가 ‘일에 대한 흥미와 열성’을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23.3%), ‘일에 대한 기술’(3.1%), ‘일에 대한 지식’(2.5%)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직무수행에 가장 필요한 요인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 지식보다 일에 대한 흥미와 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낮을수록 ‘일에 대한 흥미와 열성’(상:68.5% 중:71.7% 하:75.2%)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적이 높을수록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상:26.8% 중:23.0% 하:16.4%)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이 낮을수록 ‘일

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응답비율(상:0.8% 중:2.2% 하:3.3%)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6. 진로상담 대상 및 장애요인

1) 청소년의 진로상담 대상

청소년들의 과반수(51.4%)는 진로에 대해 '부모님'과 가장 많이 상담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26.8%), '학원 · 과외교사'(4.3%), '형제'(3.3%) 순으로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담임교사(2.0%)나 진로상담교사(1.4%)와 상담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아 청소년의 진로상담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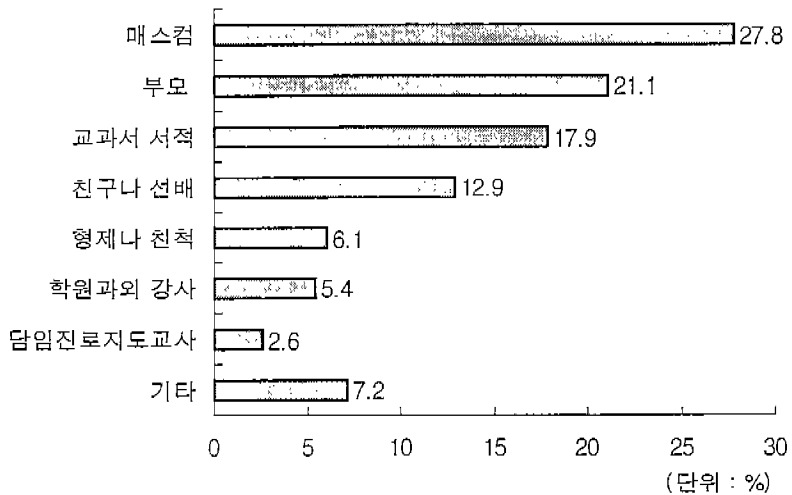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부모님'(62.9%), '친구'(18.8%), '학원 · 과외교사'(3.5%) 순으로, 고등학생은 '부모님'(41.9%), '친구'(33.2%), '학원 · 과외교사'(5.0%) 순으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부모님과 의논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의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부모님'(54.9%), '친구'(22.0%), '학원 · 과외교사'(5.0%) 순으로, 여학생은 '부모님'(48.0%), '친구'(31.3%), '형제'(4.5%)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친구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님'(상:59.8% 중:52.5% 하:44.3%)과 상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적이 낮을수록 '친구'

(상:18.9% 중:24.7% 하:34.9%)와 상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낮을수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로정보 제공이 필요함에도 또래집단에서의 의존비율이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청소년의 진로정보원



[그림 IV-6] 청소년의 진로 정보원

청소년들의 1/3정도(27.8%)가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매스컴’을 통해 얻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21.1%), ‘교과서·서적’(17.9%), ‘친구’(10.0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부모님’(29.9%), ‘매스컴’(24.1%), ‘교과서·서적’(16.4%), ‘친구’(10.0%) 순으로, 고등학생은 ‘매스컴’(30.8%), ‘교과서·서적’(19.2%), ‘부모님’(13.9%), ‘친구’(10.0%) 순으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매스컴과 교과서·서적에서 정보를 얻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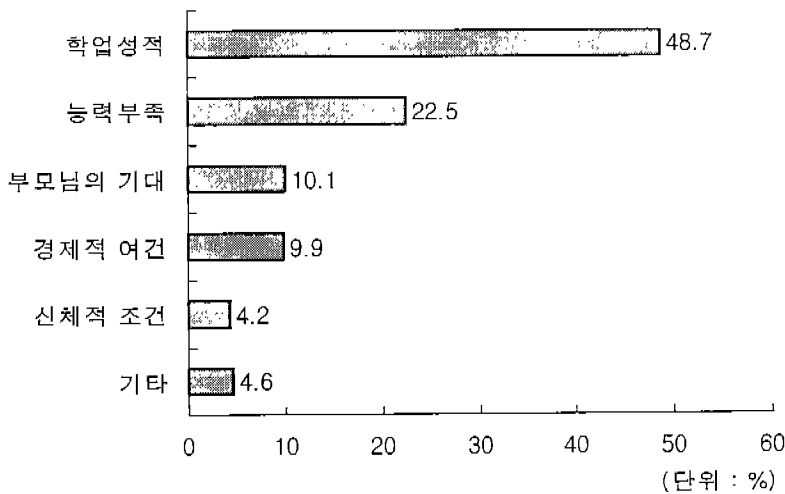
로 높은 비율을 보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메스컴’(26.4%), ‘부모님’(25.8%), ‘교과서·서적’(17.8%), ‘친구’(8.3%) 순으로, 여학생은 ‘메스컴’(29.1%), 교과서·서적(18.1%), ‘부모님’(16.7%), ‘친구’(11.6%)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친구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메스컴’(상:36.5% 중:30.7% 하:17.6%), ‘교과서·서적’(상:20.6% 중:18.9% 하:14.8%)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친구’(상:4.0% 중:9.0% 하:15.2%)에의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3) 청소년의 진로선택시 장애요인

진로선택시 장애요인으로서는 청소년들의 과반수(48.7%)가 ‘학업성적’을



[그림 IV-7] 진로선택시 장애요인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능력부족’(22.5%), ‘부모님의 기대’(10.1%), ‘경제적여건’(9.9%)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학업성적’(40.3%), ‘능력부족’(25.2%), ‘부모님기대’(14.2%) 순으로, 고등학생은 ‘학업성적’(55.5%), ‘능력부족’(20.3%), ‘경제적여건’(10.0%), ‘부모님기대’(6.8%) 순으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업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001$).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학업성적’(48.0%), ‘능력부족’(20.4%), ‘부모님기대’(12.3%) 순으로, 여학생은 ‘학업성적’(49.3%), ‘능력부족’(24.4%), ‘경제적여건’(10.4%), ‘부모님기대’(8.1%)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능력부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부모님의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상:31.7% 중:49.0% 하:58.0%), ‘능력부족’(상:20.6% 중:18.9% 하:14.8%)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진로선택이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와는 상관없이 거의 성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7. 진로준비 시기 및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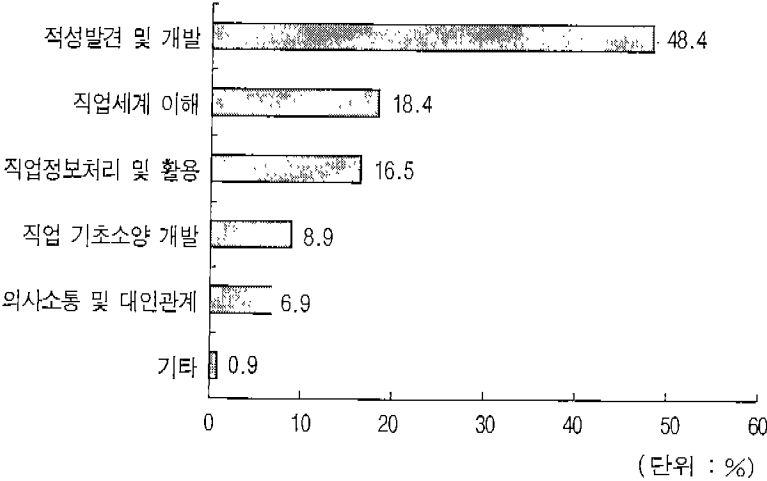
1) 청소년이 희망하는 진로준비 시기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42.2%)는 진로준비시기를 ‘중학교때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때부터’도 33.4%로 나타나 중·고등학교 시절이 진로준비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중학교’(47.7%), ‘초등학교’(23.3%), ‘고

등학교’(22.9%), ‘대학교’(5.1%) 순으로, 고등학생은 ‘고등학교’(41.2%), ‘중학교’(37.8%), ‘대학교’(10.7%) 순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중학교’(37.9%), ‘고등학교’(36.1%), ‘초등학교’(14.3%), ‘대학교’(11.8%) 순으로, 여학생은 ‘중학교’(46.5%), ‘고등학교’(30.9%), ‘대학교’(4.7%) 순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그림 IV-8] 희망하는 직업준비 프로그램

2) 청소년이 희망하는 직업준비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48.4%)는 직업준비 프로그램으로 ‘적성 발견 및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세계의 이해’(18.4%), ‘직업정보 처리 및 활용’(16.5%)에 대한 프로그램을 희망하

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진로결정 기준을 자신의 적성으로 생각하고는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적성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적성 발견 및 개발’(49.2%), ‘직업세계의 이해’(18.1%), ‘직업정보 처리 및 활용’(16.5%) 순으로, 고등학생은 ‘적성 발견 및 개발’(47.8%), ‘직업세계의 이해’(18.6%), ‘직업정보 처리 및 활용’(16.5%)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적성 발견 및 개발에 관한 프로그램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적성 발견 및 개발’(43.0%), ‘직업세계의 이해’(21.1%), ‘직업정보 처리 및 활용’(19.0%) 순으로, 여학생은 ‘적성 발견 및 개발’(53.5%), ‘직업세계의 이해’(15.9%), ‘직업정보 처리 및 활용’(14.2%)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성 발견 및 개발’에 관한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낮을수록 ‘직업세계의 이해’(상:11.9% 중:17.7% 하:23.4%)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직업정보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응답비율은 성적이 높을수록(상:19.0% 중:17.1% 하:14.0%)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V. 조사결과 요약 및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1) 진로결정 및 준비수준

청소년들의 ⅔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으나 직업에서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약하며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들의 ⅔정도(76.2%)는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약한(27.5%) 것으로 나타났지만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자신이 바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75.4%)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유가 충분히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88.5%)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은 과반수정도(41.1%)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희망직업과 부모의 기대직업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은 예술·언론관련전문직(45.3%)인 반면 부모님들이 자녀 직업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은 전형적전문직(52.9%)이다.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45.3%)가 가장 희망하는 직업군은 디자이너(9.7%), 예술가(8.8%), 연예인(8.8%), 언론인·PD(8.5%), 프로그래머(4.0%), 운동선수(2.3%) 등과 같은 예술·언론관련전문직이며, 그 다음으로는 교사(12.3%), 의사·약사(5.7%), 교수·학자(5.1%), 법조인(3.9%) 등

과 같은 전형적전문직(34.2%)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직업군으로는 과반수이상(52.9%)이 의사, 법조인 등과 같은 전형적전문직을, 그 다음으로는 예술·언론관련전문직(22.9%)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희망직업과 부모의 기대직업의 차이는 특히 예술·언론관련 전문직에서 부모님의 희망비율이 청소년의 희망비율의 반정도로 나타나 청소년의 직업인식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청소년과 부모의 희망직업 선택이유

청소년은 10명 중 7명이, 부모님은 3명 중 1명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희망한다.

청소년 10명 중 7명(73.6%)은 희망직업을 선택한 이유로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7.3%), ‘보수가 많기 때문’(3.9%),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2.6%), ‘사회적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2.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삼분의 일정도(31.3%)도 자녀에게 기대하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로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을 들고 있으나,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15.1%),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13.3%),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8.2%), ‘보수가 많기 때문’(5.3%) 순으로 나타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에 비해 부모님은 직업의 사회적 지위 및 명예, 안정성 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희망직업에 대한 직업정보 인지수준

청소년들의 희망직업에 대한 직업정보 인지수준은 보통이상이다.

희망직업에 대한 직무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과반수이상(55.0%)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직업에 필요한 능력과 적성에 대해서도 과반수이상(56.7%)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직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과반수정도(47.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조건에 대해서도 43.7%가 보통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수준이나 승진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과반수정도(47.3%)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방법에 대해서도 잘안다는 응답은 2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의 희망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직업정보 인지수준은 보통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5) 직업선택시 고려요인

청소년들의 과반수이상(68.9%)은 직업선택시 적성과 능력을 가장 중요시한다.

실제로 직업선택을 할 경우 청소년의 과반수이상(68.9%)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적성과 능력’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의 안정성’(16.9%), ‘보수’(4.0%), ‘명예와 사회적 지위’(3.4%), ‘사회적봉사’(2.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적성과 능력’(66.6%), ‘직업의 안정성’(16.6%), ‘사회적봉사’(4.8%), ‘보수’(3.8%), ‘명예와 사회적 지위’(3.2%) 순으로, 고등학생은 ‘적성과 능력’(70.8%), ‘직업의 안정성’(17.2%), ‘보수’(4.2%), ‘명예와 사회적 지위’(3.7%), ‘근무여건’(2.1%)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보수와 근무여건 등 보다 현실적인 여건들을 더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 진로상담 대상·진로정보원 및 장애요인

청소년들의 과반수는 부모님과 진로상담을 하지만,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1/3정도가 매스컴을 통해 얻고 있으며, 진로선택시 장애요인으로서는 과반수정도가 학업성적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과반수(51.4%)가 ‘부모님’과 진로상담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선배’(28.8%), ‘형제나 친척’(5.6%), ‘학원·과외강사’(4.3%), ‘담임·진로교사’(3.4%) 순으로 진로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부모님’(62.9%), ‘친구·선배’(19.1%), ‘형제·친척’(6.1%), ‘학원·과외강사’(3.5%) 순으로, 고등학생은 ‘부모님’(41.9%), ‘친구·선배’(36.6%), ‘형제·친척’(5.3%), ‘학원·과외강사’(5.0%) 순으로 진로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부모님과 의논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의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27.8%)은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매스컴’을 통해 얻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21.1%), ‘교과서·서적’(17.9%), ‘친구나 선배’(12.9%), ‘형제나 친척’(6.1%), ‘학원·과외강사’(5.4%), ‘담임·진로지도교사’(2.6%) 순으로 나타나 영상세대인 청소년에게 미치는 매스컴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진로선택시 장애요인으로서는 청소년의 과반수(48.7%)가 ‘학업성적’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능력부족’(22.5%), ‘부모님의 기대’(10.1%), ‘경제적여건’(9.9%), ‘신체적조건’(4.2%) 순으로 나타나 진로결정이 성취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7) 진로준비 시기 및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가 중학교 때부터 진로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적성발견 및 개발’을 위한 직업준비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다.

청소년의 42.2%는 중학교 때부터 진로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33.4%), 초등학교(12.9%), 대학교(8.2%), 초등학교이전(3.2%) 순으로 응답했다.

직업준비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의 과반수 정도(48.4%)가 ‘적성 발견 및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세계의

이해'(18.4%), '직업정보 처리 및 활용'(16.5%), '직업기초소양개발'(8.9%),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6.9%)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및 직업선택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진로결정은 자신들 스스로가 해야 한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부모님이나 지도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직업에서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약하지만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자신이 바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서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셋째,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로계획이나 진로준비행동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예술·언론관련전문직으로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대직업인 전형적전문직과는 일치비율이 낮다.

다섯째, 진로선택 및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성과 능력이지만 자신들의 적성이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탐색의 기회는 부족하다.

여섯째, 진로상담 및 진로정보 제공에서 학교의 담임교사나 진로상담교사와 상의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은 건전하나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및 직업 탐색·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진로지도 및 직업준비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제언

이상의 결론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에서의 수련활동과 진로지도 및 직업준비활동을 위한 실천방안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제언 1

청소년들에게 자기자신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진로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이 희망하는 진로지도 및 직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과반수정도(48.4%)가 ‘적성 발견 및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신체적 조건, 적성, 흥미, 성격, 능력, 가치관 등 자신을 여러 측면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심리검사나 가치관 명료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자기탐색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언 2

청소년들에게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및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진로발달단계로 볼 때 진로탐색, 진로준비, 진로전문화 단계로 구분되어지며, 발달과업 상으로는 직업선택과 직업준비의 기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 및 능력에 대해 이해한 다음에는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직업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진로준비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제언 3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하며 학교급간의 연계도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과반수(51.4%)가 ‘부모님’과 진로상담을 하고 있으며 담임교사나 진로담당교사와는 3.4%만이 진로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27.8%)은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매스컴’을 통해 얻고 있으며 담임교사나 진로담당교사에게서 정보를 얻는 경우는 2.6%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및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로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발달 단계이므로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의 진로지도 및 교육이 연계를 가져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진로를 인식시키고, 중학교에서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교단계별 진로지도 및 교육을 체계화시키고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급간 연계를 통해 진학·취업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언 4

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수련시설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직업준비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폭증하는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진로선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직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또한 진로지도 및 교육은 현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직업준비 및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내 청

소년 수련시설이나 산업체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일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다양화하고 개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언 5

진로지도 및 교육은 가정·학교·사회의 상호연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지도 및 교육은 청소년기에 꼭 거쳐야 할 과정으로 자신의 적성 및 능력을 발견·개발하고 이에 적합한 진로계획을 수립하며 수립한 진로계획에 따라 진로를 준비하고 이와 함께 올바른 가치관 및 직업관을 가지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자신의 진로를 의식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시대를 맞이하여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및 교육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전부를 담당할 수는 없다. 학교에서의 진로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가정에서의 진로지도와 건전한 사회풍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저마다 타고난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함으로써 미래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진로지도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상호 협동적인 연계 속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무섭·박영숙(1984). 학생의 진로결정과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애(1997). 중학교 진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교육 '97 여름호.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김봉환(1996).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충기(1983). 진로교육의 본질. 서울: 평민사.
- 김충기(1987).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김충기(1989).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성원사.
- 김충기(1996). 미래사회의 자녀교육과 진로지도. 서울: 교육과학사.
- 문래청소년회관(1995). 청소년 진로교육 상담학교 자료집. 서울: 문래청소년회관.
- 문승태(1996). 고등학생들의 진로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교한(1993). 국민학생의 진로인식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장순(1996).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가선(1996). 진로지도에 있어서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8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배영사.
- 송해균(1991).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기대와 관련요인.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선미(1997). 프랑스 중학교의 진로교육. 서울교육 '97 여름호.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신익현(1997). 인력개발요구와 진로교육의 방향. 서울교육 '97 여름호.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이무근(1993). 직업교육학 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재창(1994). 생활지도. 서울: 문음사.
- 이재창(1997). 미래에 대비한 청소년 진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제14집. 서울: 홍익대학교.
- 전현중(1997). 직업교육의 학교·기업간 연계. 교육개발 1월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부연(1996). 고교생의 진로의식 성숙도와 진로결정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1987). 진로교육체제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Zunker, V. G. (1990). *Career counseling :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California: Brooks & Cole Publishing Company.
- Sharf, R. S. (1992).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California: Brooks & Cole Publishing Company.

ABSTRACT

A Study on the Career Awareness of the Adolesc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reer awareness of the adolesc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vocational training youth activity program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698 students, selected randomly from 9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statistical techniques used for analyzing data were frequency, crosstabs and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05.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Most of the adolescents(76.2%) decided on their career, but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insufficie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ccupational expectation between adolescents and parents. Adolescents(45.3%) preferred a designer, programmer, artist etc., while parents(52.9%) preferred a educator, doctor, judges and lawyers etc.. The reason adolescents expected specific occupations was that they thought the occupations was agreeable to their aptitude and interest. Adolescents(27.8%) get career information from mass communication and they(42.2%) thought career preparation should be made in middle school.

This study shows that most of the adolescents have desirable career awareness but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ir are very irrational, because of lack of proper career guidance. These

findings have some implications for career guidance and developing vocational training youth activity programs. The major areas of the career guidance and developing vocational training youth activity programs for the adolescents are self-exploration and self-understanding, exploration of world of work.

부 록

- 청소년진료의식 설문지

청소년 진로 의식 조사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개발 및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여 청소년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 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8. 6.

한국청소년개발원

연락처 :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우 137-715)

맹 영 임 (전화 : 2188-8814)

☆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매 우 | 전 혀 |
|---|---------------------------|----------------|
| | 그렇다 | 그렇다 보통 아니다 아니다 |
| 1.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잘 알고 있다. | 5 --- 4 --- 3 --- 2 --- 1 | |
| 2.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 지 잘 알고 있지만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 5 --- 4 --- 3 --- 2 --- 1 | |
| 3. 어떤 직업에서든 성공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 5 --- 4 --- 3 --- 2 --- 1 | |
| 4. 수입만 많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 5 --- 4 --- 3 --- 2 --- 1 | |
| 5. 나는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는 직업을 택할 것이다. | 5 --- 4 --- 3 --- 2 --- 1 | |
| 6. 누구나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자기가 바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 5 --- 4 --- 3 --- 2 --- 1 | |
| 7.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 5 --- 4 --- 3 --- 2 --- 1 | |
| 8.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여러 가지 종류 의 일을 해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직업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5 --- 4 --- 3 --- 2 --- 1 | |
| 9. 직업은 일단 한번 택하고 나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 5 --- 4 --- 3 --- 2 --- 1 | |
| 10.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해 요즈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 5 --- 4 --- 3 --- 2 --- 1 | |

매 우 전 력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아니다

1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 5 --- 4 --- 3 --- 2 --- 1
로와 관련된 책이나 잡지를 요즈음 구입
또는 읽어 보았다.
12.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 5 --- 4 --- 3 --- 2 --- 1
아보기 위해 점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13. 지난 몇 개월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 5 --- 4 --- 3 --- 2 --- 1
담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이용한 적이있다.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5 --- 4 --- 3 --- 2 --- 1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15.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5 --- 4 --- 3 --- 2 --- 1
위해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다음은 직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만 골라 _____에
V표 하여 주시거나 ☐ 혹은 ()속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부모님이 희망하는 직업에 해당되는 번호를 하나
만 적어 주십시오. 만일 아래 적힌 직업 중 희망하는 직업이 없을 경우에는
46)번을 선택한 후 직업을 적어 주십시오.

당신이 희망하는 직업	부모님이 희망하는 직업

- | | | |
|--------------------------------|------------|--------------|
| 1) 교사 | 2) 회사원 | 3) 의사 |
| 4) 공무원 | 5) 기술자 | 6) 판사 |
| 7) 변호사 | 8) 검사 | 9) 교수 |
| 10) 사업가 | 11) 과학자 | 12) 은행원 |
| 13) 약사 | 14) 의상디자이너 | 15) 건축가 |
| 16) 아나운서 | 17) 기자 | 18) 국회의원 |
| 19) 대통령 | 20) 가수 | 21) 배우·탤런트 |
| 22) 운동선수 | 23) 간호사 | 24) PD |
| 25) 경찰 | 26) 군인 | 27) 사회사업가 |
| 28) 파일럿 | 29) 스튜어디스 | 30) 상업 |
| 31) 광고인 | 32) 영화감독 | 33) 프로그래머 |
| 34) 만화가 | 35) 화가 | 36) 개그맨·코미디언 |
| 37) 작가 | 38) 회계사 | 39) 통역사 |
| 40) 코디네이터 | 41) 외교관 | 42) 사진작가 |
| 43) 산업디자이너 | 44) 헤어디자이너 | 45) 성직자 |
| 46) 기타() | | |

2. 위에서 선택한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희망하는 이유	부모님이 희망하는 이유
___ 1)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___ 1)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___ 2) 적성·흥미 등에 맞기 때문에	___ 2) 적성·흥미 등에 맞기 때문에
___ 3) 보수가 많기 때문에	___ 3) 보수가 많기 때문에
___ 4)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___ 4)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___ 5) 사회적 인기가 높기 때문에	___ 5) 사회적 인기가 높기 때문에
___ 6) 부모님이 원해서	___ 6) 부모님이 원해서
___ 7) 기타 ()	___ 7) 기타 ()

3. 당신이 위에서 선택한 직업은 언제 결정하였습니까?

- | | |
|-----------------|-----------------|
| ___ 1) 초등학교 | ___ 2) 중학교 1학년 |
| ___ 3) 중학교 2학년 | ___ 4) 중학교 3학년 |
| ___ 5) 고등학교 1학년 | ___ 6) 고등학교 2학년 |

4. 선택한 직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 우	전 혀
잘 안다	잘 안다
보통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 | | |
|-----------------------|---------------------------|
| 1) 일의 내용 | 5 --- 4 --- 3 --- 2 --- 1 |
| 2)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적성 | 5 --- 4 --- 3 --- 2 --- 1 |
| 3) 작업 조건 | 5 --- 4 --- 3 --- 2 --- 1 |
| 4) 임금 및 승진 | 5 --- 4 --- 3 --- 2 --- 1 |
| 5) 구직방법 | 5 --- 4 --- 3 --- 2 --- 1 |
| 6) 직업의 전망 | 5 --- 4 --- 3 --- 2 --- 1 |

5. 직업선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___ 1) 명예와 사회적 지위 | ___ 2) 직업의 안정성 |
| ___ 3) 보수 | ___ 4) 적성과 능력 |
| ___ 5) 사회적 봉사 | ___ 6) 근무여건 |
| ___ 7) 기타() | |

6.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___ 1) 일에 대한 흥미와 열성 | ___ 2)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
| ___ 3) 일에 대한 지식 | ___ 4) 일에 대한 기술 |
| ___ 5) 기타() | |

7. 직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 | | |
|--------------------|------------------------|
| ___ 1) 직업세계의 이해 | ___ 2) 직업정보 처리 및 활용 |
| ___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 ___ 4) 자기관리(적성발견 및 개발) |
| ___ 5) 직업기초소양 개발 | ___ 6) 기 타() |

☆ 다음은 진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만 골라 ___에 V표 하여 주시거나 ()속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8. 진로(진학·직업)에 관한 상담은 주로 누구와 합니까?

- | | |
|--------------|----------------|
| ___ 1) 부모 | ___ 2) 형제 |
| ___ 3) 담임교사 | ___ 4) 진로담당교사 |
| ___ 5) 친구 | ___ 6) 선배 |
| ___ 7) 친척 | ___ 8) 학원·과외교사 |
| ___ 9) 기타() | |

9. 진로(진학·직업)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 | | |
|---------------|-----------------|
| ___ 1) 부모 | ___ 2) 형제 |
| ___ 3) 담임교사 | ___ 4) 진로담당교사 |
| ___ 5) 친구 | ___ 6) 친척 |
| ___ 7) 교과서·서적 | ___ 8) 매스컴 |
| ___ 9) 선배 | ___ 10) 학원·과외교사 |
| ___ 11) 기타() | |

10. 진로(진학·직업)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 | |
|--------------------------------------|--------------------------------------|
| ☐ 1) 초등학교 이전 | ☐ 2) 초등학교 저학년 |
| ☐ 3) 초등학교 고학년 | ☐ 4) 중학교 1학년 |
| ☐ 5) 중학교 2학년 | ☐ 6) 중학교 3학년 |
| ☐ 7) 고등학교 1학년 | ☐ 8) 고등학교 2학년 |
| ☐ 9) 고등학교 3학년 | ☐ 10) 대학교 |

11. 진로(진학·직업)선택을 할 때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 | | |
|----------------------------------|-------------------------------------|
| ☐ 1) 학업성적 | ☐ 2) 신체적 조건 |
| ☐ 3) 능력부족 | ☐ 4) 부모님의 기대 |

☆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_____에 V표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에 자세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의 성별은?

- | | |
|--------------------------------|--------------------------------|
| ☐ 1) 남자 | ☐ 2) 여자 |
|--------------------------------|--------------------------------|

2.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 | | |
|---------------------------------|----------------------------------|
| ☐ 1) 중학교 | ☐ 2) 고등학교 |
|---------------------------------|----------------------------------|

3. 당신의 집은?

- | | |
|--------------------------------------|-----------------------------------|
| ☐ 1) 아주 잘사는 편 | ☐ 2) 잘사는 편 |
| ☐ 3) 보통 | ☐ 4) 못사는 편 |
| ☐ 5) 아주 못사는 편 |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김현진	언남중학교 교사
성관모	은평중학교 교사
송종건	충암고등학교 교사
이주원	연희여자중학교 교사
정주환	연천중학교 교사
조경자	영동여자고등학교 교사
최혜정	원천중학교 교사
허현정	수도여자고등학교 교사
홍성수	단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교사

